

설날 특수 이후 하락세

| 동향

정부 주도로 수입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었다. 국내산 계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물량은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산 계란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계란이 저가에 판매됨에 따라 대 혼란의 유통상황을 전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병원성시, 또는 특정 시기에 물가안정을 핑계로 정부 주도의 계란 수입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산란계 사육면적(0.075㎡/수) 확대 시행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 산란계 산업의 일대 전환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 하나 나온 것이 없다. 업계가 단합하지 못하고 극심한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왔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협심하여 합리적 인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 자료분석

12월에 입식된 산란종계는 26,000수로 전년 같은 달 108,000수 대비 76% 감소했다. 같은 달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는 4,158천수로 전년 같은 달 3,873천수 대비 7.4% 증가했다. 금년 2월을 포함한 1/4분기 큰 알 생산에 적극 가담하는 지난해 2/4분기에 입식된 산란실용계 병아리는 13,563천수로 전년 같은 기간 13,736천수 대비 1.3% 감소했다. 12월 산란성계 도축 실적은 2,296천수로 전년 같은 달 보다는 38.6% 증가했으나 전월 보다는 22.4% 감소했다. 이로써 '23년 총 산란성계 도태수는 37,097천수로 전년 35,973천수 대비 3.1% 증가했다. 12월 산란사료 생산실적은 244,559톤으로 전년 같은 달 246,488톤 대비 0.8% 감소했다. 반면 같은 달 육추사료 생산실적은 31,446톤으로 전년 같은 달 30,862톤 대비 1.9% 증가했으며, 산란종계사료 생산실적은 6,980톤으로 전년 같은 달 7,407톤 대비 5.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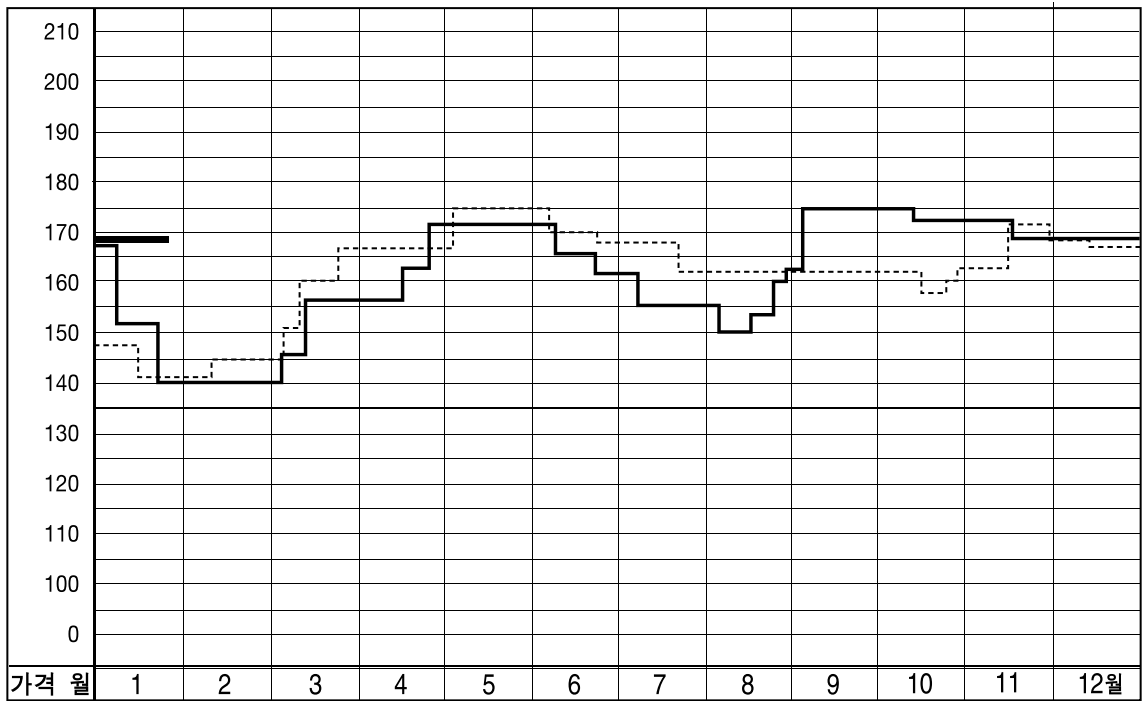
| 전망

설날 특수수요기를 앞두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유통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병원성시가 창궐하는 시기지만 예년과 다른 도태정책에 따라 산지 계란 공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풀이된다. 금년 시작부터 수입 계란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통 분위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물론 국내 생산량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수량이지만 분위기를 흐리는 역할은 톡톡히 하였다. 문제는 설날 이후에 찾아 올 가능성이 크다. 작년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입식된 계란들이 당분간 큰 알 생산에 집중 가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자칫 소비에 문제라도 생기면 생각보다 큰 폭의 가격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월에 생산된 산란사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노계군 도태 등으로 적정 사육수 유지에 집중해야 하겠다.

이달의
계란
전망

경영정책국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22-- 2023 — 2024 —

■ 산란계관련 통계자료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20	25,000	3,540	37.2	233.5	1,000	1,454
	2021	153,199	4,261	30.1	217.7	1,213	1,700
	2022	27,000	4,300	30.0	266.7	1,650	1,455
	2023	29,121	3,879	28.1	239.2	1,450	1,515
2	2020	147,280	3,463	35.0	213.4	1,000	1,406
	2021	36,000	3,649	27.4	190.9	1,379	1,850
	2022	46,600	3,976	29.0	240.0	1,550	1,429
	2023	23,000	3,760	26.6	216.7	1,450	1,400
3	2020	10,000	3,644	37.0	240.3	1,000	1,695
	2021	154,936	3,577	33.3	204.2	1,638	1,813
	2022	70,000	4,644	32.7	275.5	1,550	1,592
	2023	46,000	3,937	30.1	243.0	1,450	1,516
4	2020	97,032	3,530	36.5	232.4	1,050	1,192
	2021	53,000	3,556	34.9	197.7	1,750	1,850
	2022	0	4,872	32.0	268.0	1,550	1,660
	2023	33,280	4,021	27.5	223.6	1,450	1,586
5	2020	104,120	3,638	38.8	226.8	1,050	1,170
	2021	33,000	3,796	36.3	201.2	1,761	1,900
	2022	0	4,288	33.9	276.1	1,550	1,741
	2023	33,000	4,682	30.0	249.1	1,450	1,720
6	2020	80,760	3,660	38.6	219.8	1,050	1,185
	2021	90,240	3,327	36.0	208.8	1,950	1,900
	2022	68,000	4,581	31.9	257.8	1,550	1,704
	2023	79,600	4,860	29.3	229.4	1,450	1,670
7	2020	40,000	3,537	40.5	230.1	1,050	1,233
	2021	36,000	4,213	36.0	212.2	1,950	1,851
	2022	50,000	4,755	30.4	245.5	1,550	1,665
	2023	32,000	4,625	29.2	216.1	1,450	1,569
8	2020	29,120	3,490	35.4	208.9	1,050	1,362
	2021	9,500	4,064	32.8	210.6	1,850	1,823
	2022	9,500	5,455	31.8	266.1	1,550	1,630
	2023	62,000	5,699	31.3	219.4	1,450	1,547
9	2020	46,000	3,794	38.0	238.8	1,050	1,546
	2021	26,000	4,186	34.4	217.5	1,838	1,706
	2022	37,000	4,688	33.0	224.0	1,550	1,630
	2023	10,000	4,471	31.9	220.6	1,450	1,730
10	2020	59,120	3,018	36.9	225.6	1,050	1,494
	2021	0	4,698	36.3	218.7	1,750	1,522
	2022	87,680	3,813	34.2	227.7	1,550	1,629
	2023	96,840	3,914	37.3	245.6	1,450	1,720
11	2020	0	3,791	34.5	224.2	1,050	1,479
	2021	94,360	4,567	36.3	235.0	1,750	1,504
	2022	90,330	3,340	33.9	237.5	1,550	1,691
	2023	32,000	4,026	34.2	242.2	1,450	1,710
12	2020	20,800	4,192	35.3	242.3	1,050	1,489
	2021	26,000	4,814	40.4	253.0	1,706	1,491
	2022	108,600	3,873	36.1	246.4	1,550	1,711
	2023	26,000	4,158	31.4	244.5	1,450	1,710
계	2020	659,232	43,297	443.7	2,736.2	1,037	1,392
	2021	763,435	48,708	414.0	2,567.5	1,694	1,732
	2022	631,110	52,530	442.4	2,729.0	1,558	1,651
	2023	502,841	52,032	367.1	2,789.6	1,450	1,616